

## 하나머티리얼즈(166090), 축구경기장 5개 크기 '아산사업장' 준공

- ▶ 국내 최대규모 실리콘(Si) 부품 Capa 확보 및 실리콘 카바이드(SiC) 신사업 박차
- ▶ 반도체 고도화에 따라 급증하는 Si Parts 수요 대응 및 SiC Parts 생산으로 지속성장 토대 마련

<2019-01-23> 하나머티리얼즈가 아산사업장을 통해 사업다각화와 생산 효율화에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 부품·소재 전문기업 하나머티리얼즈(166090, 대표이사 오경석)는 지난 22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에서 '하나머티리얼즈 아산사업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하나머티리얼즈 최창호 회장, 오경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오세현 아산시장, 일본 도쿄일렉트론 CEO Toshiki Kawai, 도쿄일렉트론 코리아 Yasuyuki Kuriki 회장 및 원제형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아산사업장은 부지 49,600㎡에 연면적 34,165㎡로, 축구경기장 크기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향후 Si(실리콘) 및 CVD SiC(실리콘 카바이드) Parts를 생산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아산사업장에 CVD SiC Parts의 소재 및 제품 생산에 특화된 전용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서 신 성장동력인 SiC Parts 사업 부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잉곳(Ingot) Slicing, Cropping, Coring 등을 수행하던 동면사업장이 아산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며 생산라인 운영의 효율성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오경석 대표이사는 “작년 말 백석사업장 라인 증설과 함께 이번 준공까지 마무리되며 하나머티리얼즈는 명실공히 Si Parts의 국내 최대 규모 생산기지를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리콘 부품 시장 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CVD SiC의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한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당사의 신 성장엔진이 되어줄 SiC(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본격 착수해 지속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하나머티리얼즈는 대구경 실리콘 잉곳 일관생산체제를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실리콘 부품(Si Parts)부문 M/S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고사양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공정 내 소모품 사용이 늘며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동기실적을 상회하는 1,219억 원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부품 수요 급증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반도체 업계 내 기존 설비용 물량뿐만 아니라 교체 및 신규추가 설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모품 수요도 급증해 사상최대 실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자료문의 : 하나머티리얼즈 정형재 차장 (041-410-1255)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

[사진자료]



[사진설명 : 사진 왼쪽부터 하나머티리얼즈 오경석 대표이사, 도쿄일렉트론 코리아 Yasuyuki Kuriki 회장, 오세현 아산시장, 하나머티리얼즈 최창호 회장, 도쿄일렉트론 본사 Toshiki Kawai CEO, 국회의원 박완주, 도쿄일렉트론 코리아 원제형사장, 아산시 기획경제국 유지원 국장]